

‘스캔들’ 영화 의상 분석

남수경* · 박길순 · 박춘순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A Study on the Costumes in Movie ‘Scandal’

Su Kyoung Nam* · Kil Sun Park · and Chun Sun Park
Depart of Clothing and Textile, Chungnam Univ.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복식은 사회의 여러 측면을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과거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의상은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 그 시대의 복식 문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어, 특정 시대에 살았던 사회 각 분야 사람들의 복장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본 연구는 조선후기 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 영화 <스캔들>의 영화 의상이 그 시대의 의상 특징을 잘 반영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형태 · 소재 · 색상 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그 차이점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또한, 각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영화 의상의 표현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내용

사극 영화 의상의 고증과 우리나라 사극 영화의 역사와 정조 시대의 의상 및 사회 · 문화적 배경을 연구하기 위해 선행연구, 학술지, 관련 서적 및 도록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하였다. 또한 <스캔들>의 의상에 관한 자료 조사는 영화 관계자와 이메일을 통하거나 직접 인터뷰하였다.

2. 한국 사극 영화와 의상

2.1 한국 사극 영화의 역사

한국 사극 영화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시기는 한국인이 만든 최초의 영화인 1919년 김도산의 <의리적 구투> 이후 1950년까지의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52년부터 1980년까지의 시기이다. 1955년에는 국도극장에서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이 개봉되어 흥행에 성공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1980년대 이후 시기로 <어우동>, <황진이>, <씨받이>, <연산군>, <연산일기> 등이 제작되었다.

2.2 한국 사극 영화 의상과 고증

복식을 고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실제 유물이나 유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둘째, 역사적 문헌, 예술작품 등 여러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시대극이라면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고증의 바탕 위에 극중 인물들의 성격 파악을 하여, 그 인물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색상 · 소재 · 스타일 등을 조명해내는 의상 담당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3. 영화 ‘스캔들’의 내용 및 배경

3.1 영화의 내용 및 배경

이 영화는 프랑스 작가 라클로르의 소설 『위험한 관계』를 원전으로 한다. 이 작품은 인간의 굴절된 욕망과 허위가 가져오는 자기파멸의 과정을 밀도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 영화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1790년대는 조선 22대 정조의 치세이다. 이 시기는 당파 싸움이 심했던 시기로 복식에도 영향을 끼쳐 부녀자들의 모습만 보고도 당파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중앙 정계는 당파 싸움으로 혼란한 모습을 보여 주었지만 서민들은 상업적 농업과 유통 경제가 발달을 주도하고 있었다.

3.2 정조 시대의 복식

16세기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영 · 정조 시대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한 실학 사상은 복식에 있어서도 그 당시 계급사회의 사치성과 의복의 불편함 등을 배제한 검소하고 편리한 의생활을 지향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무조건적인 모화(慕華)사상에서 탈피하여 중국의례의 좋은 면만을 받아들여려는 합리적 사고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 시기 여자 복식의 특징은 머리에는 커다란 가체를 얹고, 좁은 직배래 소매에 짧은 기장의 저고리와 풍성한 모양의 치마를 입는 하후상박(下厚上薄) 형태이다.

관모 · 저고리 · 바지 · 포로 구성된 남자 복식은 입체가 확립되었다. 포제 또한 관복의 단령과는 달리 명제를 도입

하여 국속화된 직령인 도포·창의가 선보인다. 전체적으로 풍성하고 사모와 갓의 모체가 높으며, 갓의 양태 또한 넓었다. 포는 옷길이가 길고, 소매가 넓고 길었다.

4. 영화 '스캔들'의 복식 분석

<스캔들>의 전체적인 의상 컨셉은 '우아한 화려함'이었다. 조선시대에도 돈으로 취향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명품족이 있었을 거라는 가정하에 캐릭터를 창조하였다. 이런 컨셉을 바탕으로 의상을 담당자는 각 배역의 신분·성격에 맞는 의상을 디자인하여 제작했다. 조선 시대 상류층의 생활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 감독과 미술팀은 집도, 옷도 직접 짓고 소품도 손수 만들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진품에 가장 가까운 물건을 수집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총 제작비 50억원 중 20억을 미술에 투자했다. 물론 의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복식의 색상은 색이 바랜 박물관의 한복보다는 한 톤 선명한 색을 썼고, 전통적인 보색 대비를 쓰되, 흔히 쓰이는 적색과 녹색 대신 청색과 보라를 나란히 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변용을 주었다. 사방과 중앙을 상징하는 오방색인 적·황·청·흑·백을 기본으로 삼지만 변용한 색깔이 등장한다. 영화에 사용된 100여벌의 의상들은 생명주(生明紬)·사(紗)·명주(明紬)·단(緞)·광목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원단의 염색은 원단을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화학 염료를 이용하였으나, 방법에 있어서는 손으로 직접 염색하였다. 의상 제작은 손바느질로 지어졌다. 여성 출연자들의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가채도 합성이 아닌 실제 인모로 제작하였다.

조씨 부인은 그 시대의 유행을 앞지르는 패션 리더로 형태에 있어서는 저고리는 길이가 매우 짧고, 몸에 꼭 끼게 입으며, 치마는 풍성함 주름을 넣고 화려한 색감을 사용하였다. 두식에 있어서는 가채를 이용한 엷은 머리이다. 복식을 통해 미모와 권력을 보여준다.

숙부인 의상의 중심 색은 청아하고 금욕적인 청색이며, 두식도 나라에서 권장하는 단정한 쪽편 머리이다. 그 시대의 정숙한 부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저고리 도련은 길고 소매통에도 여유가 있다. 조원과의 사랑이 무르익으면서 붉은 빛깔의 의상이 가미된다.

조원은 여인들의 복식과 대조적으로 단조롭게 백색과 청현색 두 가지 색의 도포만 입고, 여러 액세서리를 통해 멋을 표현하다. 청현색 도포를 입어서 심리적 고민을 표현하다.

5. 결론

정조시대의 의상과 영화 <스캔들>의 의상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영화의 의상이 정조 시대의 의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조시대의 의상을 기본으로 변화를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특히, 형태적인 면에서 유사성을 보여 정조 시대 의상의 기본적 틀을 따르고 있음을 나타내었고, 색상과 소재 면에서는 영화 의상에 현대적인 감각이 가미되어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의상을 통해 등장 인물의 신분과 성격을 잘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성격적 표현을 의상의 색채를 이용하여 잘 표현되었다.

참 고 문 헌

- 마르셀 마틴. (Martin, Marcel). 황왕수 옮김(1993). 『영상언어』. 다보문화, p. 178.
 은지연. (2002). 영화 '춘향전'의 복식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2.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봉현숙. (1999). TV사극드라마 의상의 고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